

“아나뱁티스트 공동체의 지향은 초대교회” 2019 아나뱁티스 컨퍼런스에서 메노나이트 김복기 선교사 발제



메노나이트 선교사 김복기 목사

2019 아나뱁티스 컨퍼런스가 기독교회 관 2층 조에실에서 19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됐다. 아나뱁티스트들이 살아온 공동체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으로, 이날 첫 번째로 캐나다에서 메노나이트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복기 목사가 발제했다.

서두에서 그는 아나뱁티스트 공동체를

소개하면서, “아나뱁티스트 공동체 중 내가 속해 있는 메노나이트는 교회와 삶의 공동체가 분리되지 않았다”며 “서로 간 수저, 포크가 몇 개 있는지 알 정도로 친밀한 공동체”라고 전했다. 또 그는 “아나뱁티스트 공동체가 추구하는 방향은 바로 복음과 삶이 일치하는 교회”라고 전

하며, “현재 한국 교회는 복음은 있는데, 삶이 따라오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교회는 주님 품지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임이지, 제도나 건물은 아니”라며 “결국 이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서 이 땅 위에 존재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21세기 한국 교회에서 개혁 운동을 논하는 사람들은 16세기 종교개혁 지도자 루터, 츠빙글리로 돌아가자고 외친다”며 “그러나 이들은 정작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드러난 초기 교회 공동체로 돌아가자고 주장한다”고 했다. 때문에 그는 “교회에서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단초는 바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드러난 초대 공동체상을 본받는 것”이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다양한 아나뱁티스트 공동체를 소개했다. 먼저 그는 후터라이트 공동체를 소개하며, “1527년 아나뱁티스트들은 종교개혁자들과 함께 교회 개혁을 외치자, 박해를 받았다”며 “이 때 모라비아 지역으로 피신했다”고 전했다. 그래서, 그는 “모라비아 지역에서 1528년부터 후터라이트 공동체가 시작됐지만, 박해는 여전했다”며 “박해를 피해, 모라비아, 슬로바키아, 트렌실바니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으로 옮기며 결국 1918년에 캐나다로 정착했다”고 소개했다.

후터라이트 공동체 원칙도 소개했다. 그는 “후터라이트의 기본 원칙은 결국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자”라며 “기준은 사도행전 2장과 4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재산 공유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며 “자치구에 있는 사람들은 사유재산을 갖지 않고, 필요한 모든 것을 나누어 갖는다”고 역설했다. 다만 그는 “자발적이며 강요는 없다”며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의 가치관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개인 은행 구좌가 없고, 공동생산, 공동 나눔 형태”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자치구 형태로 거주하며 평균 80명 정도”라고 소개하며, “만일 100명이 넘어가면 분리를 한다”며 소규모 공동체를 지향함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가족별로 살지 않고 공동체 단위로 삶을 영위한다”며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지만, 공동체가 부여하는 개인 소유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더불어 그는 “공동체원들은 성공과 실패 모두를 공유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농업, 축산을 주요 경제 기반으로 삼았지만, 현재는 제조업으로 옮겼다”고 전했다. 또 그는 “결혼도 후터라이트 공동체 안에서만 이뤄지며, 될 수 있으면 남자 쪽이 다른 콜로니에서 결혼 여성을 찾는다”라며 “이혼은 허락권장 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는 50쌍이 차 안 된다”고 소개했다.

덧붙여, 그는 “자녀를 교육도 공동체 안에서 모두 이뤄진다”고 한다. 그의 말에 의하면, 교육도 유아-유치원-중고등학교 과정이며, 공동체 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대학가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현재 제조업으로 생산 기반이 옮겨갔지만, 캐나다 후터라이트 공동체가 생산하는 철면조, 가금류 같은 경우 그 주의 4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생산량이 많다. 그는 “주로 후터라이트 공동체는 미국, 캐나다에 많다”며 “1979년 일본 개척을 시도했지만 안타깝게도 실패했다”고 전했다.

두 번째로 아미쉬 공동체도 소개했다. 그는 “아미쉬 공동체는 미국 30개 주와 캐나다 온타리오 공동체에 존재하며, 남미,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 남미에도 뿐만 아니라 있다”며 “현재 인구는 총 330,470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할 짐은, “농촌에 거주하며 공동체 내에 이뤄지는 교육이 8학년 까지인데, 이는 우리나라로 치면 중 1 교육에 해당한다”며 “그들은 읽기, 쓰기, 말하기만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다만 그는 “학력이 중 10이라 해서 무시할 수 없는 건, 그들의 신조가 평생 그리스도 안에서의 배움”이라며 “그들의 지혜와 철학은 굉장히 깊고 수준이 높다”고 밝혔다.

그들의 핵심 가치로, 그는 “겔라센 하이트를 중시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성경 말씀에 헤시히 순종해, 가치와 의식을 말씀에 고정하는 신념”이라며 “양보, 물러남, 내적복종, 순종, 이기심 극복, 자기주장을 포기하고자 하는 의지, 겸손, 평범한 옷차림, 단순, 폭력을 거부함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가 속한 메노나이트 공동체를 소개했다. 그는 “아나뱁티스트 공동체 중 가장 큰 그룹”이라며 “총 9,624 교회, 146만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그런 크로프트라는 돌봄의 공동체를 소개했다. 그는 “수준 높은 돌봄의 공동체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모여 살고 있다”며 “홀로 사는 노인들이 외로움 없이 한데 어울려 살 수 있는 기독교 공동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그는 “도시 주변에 위치해 가족과의 접촉을 잊지 않고, 규율에 얹매이지 않는다”며 “노인들에게 필요한 집과 서비스, 장례, 병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공동체 신생아들을 돌보도록 해, 노인들이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아나뱁티스트 공동체의 제자로는 결국 평화를 지향한다”며 “우리에게 공동체와 교회는 동의어이며, 서로의 의향을 최대한 존중하되 결과가 아닌 어울림의 과정에 배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발제를 마무리 했다. 한편 김복기 목사 외에도 발제자로 침신대 김난예 교수는 ‘아나뱁티스트 공동체와 평화의 삶’을, 하늘숲- 좋은나무 공동체 설은주 목사는 ‘아나뱁티스트 공동체 설은주 목사’를, 동북아 MCC Chris Rice는 ‘화해의 관점에서 보는 공동체의 실제’ 등을 발제했다.

노형구 기자

3.1운동 백주년·부활절 앞두고 한교연, 40일 특별기도운동 벌인다



한국교회연합이 한국교회 동질성 회복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40일 특별기도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전국 기도원 원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여교역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교연 제공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3.1운동 1백주년과 부활절에 즈음하여 한교회와 나라를 위해 특별기도기간으로 삼고, 이 같은 내용을 화원교단 및 단체에 목회서신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한교연은 한국교회 40일 특별 기도운동 전개와 관련해 지난 18일 오후 4시

군포제일교회에서 전국 기도원 원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여교역자들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40일 특별 기도운동 전개에 따른 의견을 나누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한국교회가 기도원을 중심으로 기도의 불길이 타율리 영적으로 부흥과 성장을 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바”라며 “그러나 어느 때부턴가 교회들이 기도원을 멀리하고 교인들에게도 권하지 않음으로써 교회와 기도원이 괴리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이로 인해 한국교회에 뜨겁게 타율렸던 기도의 불씨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도원 원장들은 “이는 한국교회가 양적으로 커지고 성도들의 삶이 풍요해지면서 기도의 열기가 점점 식고 있는 문제도 있지만 교회들이 기도원을 불신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기도원

자체에 있다”며 “기도원을 통해 건강한 기도운동의 불씨가 살아나려면 견진하게 운영되는 기도원과 그렇지 않은 기도원을 구별해 건전한 기도원을 중심으로 기도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권태진 대표회장은 “한교연이 3.1운동 1백주년을 기해 부활절까지 40일간 특별기도기도 기간으로 선포하고 한국교회 동질성 회복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운동을 전개해 나가려 한다”며 “건전하게 운영되는 기도원들을 중심으로 같은 제목으로 릴레이로 기도운동을 전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원장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매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한 제목으로 기도하는 기도원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며 한교연이 3.1운동 1백주년과 부활절을 즈음에 전개하는 특별기도 운동에 전국의 기도원에서 사역하는 여교역자들을

중심으로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기도원 원장 여교역자 초청 간담회에는 예장 합동개혁 부총회장 오영자 목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 총재, 월계동 기도원장)를 비롯, 김정숙 목사(민족복음화 증경대표), 이길자 목사(삼각산 기도원, 국제공항기도원장), 임은선 목사(능력기도원장), 황송자 목사(아가페기도회) 등이 참석했으며, 한교연에서는 삼임회장 김효종 목사와 선교위원장 김바 목사, 사무총장 최귀수 목사, 기획홍보실장 김훈장로가 배석했다.

박용국 기자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

사장 김광수 발행인 장세규 편집인 김규진 인쇄인 허요섭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번호 02-739-8119 / 팩스 02-739-8120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광고 구동문의 070-4352-2480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대표구좌 SC은행 130-20-571787

구독신청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 1개월 15,000원

우리은행 1005-301-884992

등록번호: 서울 기50089 등록연월: 1990년 7월 19일

간발: 일간

미주 기독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www.kogas.or.kr

굴착공사 신고번호
1644-0001

한국가스공사

바르게 딘는 안전의 첫걸음

굴착신고 및 사전협의는 굴착공사의 처음입니다

굴착공사에 의한 배관 손상사고로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굴착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굴착신고는 필수입니다.

굴착공사 신고절차

굴착공사계획 신고 ◉ 접수번호 발급 ◉ 가스배관 및 굴착현장 표시 ◉ 굴착공사개시 통보 ◉ 굴착공사 시행

*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시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인 2세가 감옥에?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The Lock Ministry 한기영 목사를 만나다



한기영 목사는 The Lock Ministry를 통해 그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며, 숙소와 직업을 제공하며 자체 운영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 사업 목표는 ‘임시 기숙소 확보’, 직업 훈련소 준비, 직업 훈련 자원자 네트워크 구축이다. ©미주 기독일보

지난주 금요일 미주 기독일보 사무실에서 The Lock Ministry의 한기영 목사를 만났다. 2017년 17년간 목회한 교회를 은퇴하며 33년을 산 미시간을 떠나, 자동차에 달장 필요한 옷가지를 싣고 캘리포니아로 왔다. 그리고 작년 10월 ‘갇힌 자에게 놓임’을 펴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LA에 언제 오셨나요?” 통성명 같은 기자의 질문에 그는 긴 이야기를 풀어 놓았다.

“제작년 1월 말에 LA에 왔다. 브레이아에 있는 앤보서더교회(Ambassador Church)에 나가 예배를 드렸다. 한국인 2세가 목회를 하는, 다양한 인종이 모인 다민족교회다. 25년 전 그곳 목사님이 탈북을 졸업하고 전도사로 계실 때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오셔서 청소년 수련회를 섭겨주셨던 것이 계기가 됐다. 그러다 말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어떤 모임에 갔다가 남상국 목사님을 만나게 됐다. 마침 그분이 저와 동갑이어서, 제게 무슨 교회를 다니시는지 물으시며, 부에나파에 있는 원호프교회(One Hope Church)를 소개해주시셨다.”

“원호프교회는 한국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나오는 교회인데 한국 목사님들이 교대로 말씀을 전하는 성도 수 20명 정도의 작은 교회다. 그 교회 절반이 저 같은 은퇴한 목사이고 반은 양로사역, 노인대학, 멕시코 선교 등을 하신다. 거기서 감옥 사역을 하시는 John Lee 목사님과 함께 구치소를 찾았어.”

“미시간에 있을 때는 한인 2세가 감옥에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나 많은 한인 2세들이 감옥에 갇혀있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다 교회를 가 봤고, 부모님도 모두 장로, 원사, 집사, 심지어 목사인 경우도 있었다.”

“19살의 데이비드(가명)는 머리는 모호크 스타일로 자르고, 온몸에 타투를 하고 있었다. 이 아이가 처음 나왔는데 무시무시했다. 감옥에서 면회를 하면 20분 정도 시간을 주는데, 대화를 마치며 기도하는 것 외에 내가 도와 줄 것이 있는지 물어, 그는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John Lee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50불까지 영치금으로 넣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셨

다. 그래서 50불을 넣어주었고 3주후 그를 다시 만났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다시 물었다. ‘기독 말고 너를 위해 해줄 게 있나?’ 그의 대답은 지난번과 똑같았다. 감옥 안에서도 미약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고민이 됐지만 지갑에 있던 40불을 줬다.”

“2주후 그를 만났는데, 그가 ‘pastor Han, pastor Han’이라며 반갑게 나를 맞았다. 자기가 성경 공부하는 곳에 있는 데 거기서 요셉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했다. 싸움이 일어나면 거기에 빠지지 않아서 별명이 rush였고 19살 때, 이미 총을 세운데나 맞았고, 12살부터 소년원을 들락날락 했던 아이였다. 그런 그가 다시는 절대 싸움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작년 4월 재판을 받고 무죄(not guilty)로 풀려 나왔다. 고등학교 자격증을 받아 사이프레스 커뮤니티 칼리지에 입학했다.”

그는 이를 만나면 발견한 사실은, 이들에게 꿈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젊은 수감자들에게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대부분 어깨를 들어올릴 뿐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배소서 2:10절 말씀을 전해주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걸작품’(God’s Masterpiece)임을 가르쳐주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Mission)과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할 책임(Mandate)이 있음을 가르친다.”

“미시간에 있을 때는 한인 2세가 감옥에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40살이던 다니엘은 살인으로 종신형을 받은 상태였다. 그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데 수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눈물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의 눈물을 흘리고는 하는 생각이 들었다. 침례교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침례를 통해 많은 감동을 받은 했다. 예수님과 함께 물에 잠겼다가 부활을 체험하는 상징적인 의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감동 없이 멋있하게 믿는 이들도 많다. 그런데 감옥에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며 많은 감동을 받았다.”

감옥에서도 침례를 주시니요?

“침례를 침례하진 못한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공부를 할 수 있지만 일대일 상담이 안되기 때문에 한사람 한사람과 면담을 한다. 밑바닥에 내려가는 게 사람마다 다르다. 구치소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마음이 높아져 있는 수감자들도 많다. 한 2~3년 정도 거기 있으면 정신을 차리는 것 같다. 자기 파트너를 죽이고 구치소에 들어와 7년을 보낸 수감자(40세)가 있었다. 그는 구치소에 들어온지 3년 반 만에 아이폰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밑바닥을 체험했다.”

그가 이 책을 쓰게 된 것,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한 영혼을 향한 관심 때문이었다.

“이 책을 한달 만에 쓴 게 너무 신기하다. 작년 7월, 내가 만난 사람 중 한 사람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그러나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그를 위해 기도하고 책상에 앉아 한 달간 그에 대해 글을 적기 시작했다. 그렇게 쓴 글이 모여 한달 만에 책으로 나오게 됐다.”

Lock Ministry란 무엇인가?

“제작년 9월 첫째 주일날, 우리 감옥 사역팀에서 돌보던 한 청년이 아버지와 함께 앤보서더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그리고는 매주 예배를 드렸다. 기쁜 마음으로 그와 함께 점심을 먹고, 청년 소그룹 모임에 연결해 주었다. 그러나 그 기쁨은 끝에 끝났다. 12월 첫째 주일이 됐을 때 그가 오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다. ‘아들이 다시 마약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우리 사역이 실패했다.”

그는 그 실패의 원인을 끝난 책 『죄수가 돌아올 때 (When Prisoners Return)』에서 발견했다고 말한다.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던 팻 놀란은 횡령으로 감옥에 들어간 이후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정치를 그만두고 찰스 콜슨이 이끄는 교도소전교회(Prison Fellowship)에 들어가 교정사역을 시작했다. 이 책에서 그는 ‘재소자는 돌아올 때 교회가 도와줘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운전면허도, 직업도, 의료보험도 없다. 미내 감옥에 있는 재소자는 220만 명에

이른다. 그중 매년 60만 명이 출소하지만 67.8%가 3년 내에 다시 잡혀 들어간다. 이를 재범(recidivism)이라 한다. 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두 번째, 교회가 멘토 역할을 해줘야 한다. 청년들을 만나며 정말 담담했던 것은 그들이 정말 형 같은 멘토를 만났다 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란 점이었다.”

“미시간 주변에는 큰 호수가 많다. 그런데 이 호수들의 높이가 같지 않아 큰 큰 그룹이 생기기 때문에 배가 다니지 못한다. 북 미시간에 수 세인트 마리라는 도시가 있다. 캐나다 접경 도시인 거기서 수퍼리어 호와 휴온 호가 만나는데, 이 두 호수의 높이 차를 극복하고 배가 다닐 수 있도록 갑문(the Lock)을 설치했다. 파나마 운하에도 태평양과 대서양의 높이가 달라 갑문이 설치되어 있다.”

“갑문은 양쪽에 수문을 만들어, 수위를 갖게 만들어 배가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위치에 있다. 마치 미숙아로 태어나면 인큐베이터 안에서 걸러지듯, 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정도가 될 때까지 보살피는 과정이 필요하다.”

“Lock Ministry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Love of Christ’s Kingdom, Learn On Christ’s Kingdom, Live Out Christ’s Kingdom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감옥을 방문해 말씀을 전하고 큐티집, 성경책을 제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그리고 먹고 살 곳을 줘야 한다. 다음으로 제대로 된 직업을 갖도록 도와주고 훈련을 시켜야 한다. 그러면 자기 자존감이 높아진다.”

그는 이 사역을 위한 모델로 삼는 교정사역 단체들에 대해 설명했다.

“예수회 그레고리 보일 신부가 1992년 LA에 쟁단 재활을 위해 설립한 흙 보이 인더스트리즈(Homeboy Industries)는 식당과 빵공장을 운영하며 이들에게 직업을 제공한다. 센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드렌시 스트릿 재단(Delancey Street Foundation)은 1971년 미미 실버트 박사에 의해 시작됐다.”

“그는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서 심리학과 범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감옥에서 나온 청년들을 자기 집에 데려와 재우기 시작해 47년 동안 1만 5천명 이상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했다. 현재는 센프란시스코 베이브릿지 아래 500명 동시수용이 가능한 건물을 지어 1,2층에서 비지니스를 하고 3,4층은 숙소로 사용한다. 이 재단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40개의 사업을 운영하며 자급자족하고 있다.”

“미미 실버트 박사는 이곳을 ‘꼴찌들을 위한 하버드’라고 부른다. 이곳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정장으로 갈아 입하고 오페라 공연에 테리고 간다. 정장을 한번도 입어본 적이 없고, 오페라 공연에 가본 적도 없는 이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또 ‘Teach other, each other’ 이란 모토로,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서로 배우고 가르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중학교 실력을 가진 사람을 가르치고, 중학교 실력을 가진 사람은 초등학교 실력을 가진 사람을 가르치며 아무 것도 가르칠 게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쓸모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한기영 목사는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실패했다는 것이다. 감옥에 있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이미 크리스천이거나 최소한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며 “교회가 그들을 불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거나 포기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교회가 그들을 올바로 가르치고 돋는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The Lock Ministry는 20일 주일 오후 5시 Ambassador Church(701 S. Sunkist St., Anaheim, CA 92806)에서 “The Lock Ministry 창립 및 한기영 목사의 저서 ‘갇힌 자에게 놓임’ 출판 기념 예배”를 드렸다. 웹사이트: thelockministry.org.

미주 기독일보 주디 한 기자



해금연주자 노은아

의 춤이다. 한편 노은아 해금연주자는 “해금산조는 그 고유한 소리로 우리를 은은함의 깊은 맛에 심취하게 하는 특성이 있으며 세계인들은 이 연주를 통해 우리 민족의 세계관, 사상, 철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산조춤이 더해져 이를 통한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운 조화를 세계인에게 전할 것이다. 전통이 깊은 고유한 예술은 서로 공존하며 상호작용하듯 이번 연주를 계기로 해금의 예술적 표현 범위가 넓어져 가치가 더욱 존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나래 기자

노은아, 성당서 한국의 ‘산조’ 해금 연주

노은아는 해금독주회 ‘산조’가 오는 2019년 1월 31일 오후 6시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산마르코대성당에서 공연을 진행한다. 서울예술대학교 음악학부 한국음악전공 교수인 노은아 해금연주자는 한국 전통 음악 중 민속악을 대표하는 ‘산조’로 세계인이 흐느끼며 사랑하는 노은아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수여받으며 한국음악 전공의 엘리트코스를

지고 세계를 향해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현대 해금 음악으로써 세계화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는 선두에 노은아가 있다. 이미 2010년 발매한 ‘세계를 끌구다’에는 세계인들과 소통이 가능한 음악들로 가득하며 전통적으로 국한되어 있던 해금연주에 다양한 동, 서양 현악기의 특성과 연주법을 활용하여 해금 연주법을 정립하였다.

노은아의 섬세하고 단단한 완성도 높은 해금 소리와 상상과 초월하는 주법과 테크닉이 더해져 오랜 세월동안 불가능이라 여겼던 해금의 한계를 뛰어 넘는 폭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음악으로써 해금은 한국을 넘어 세계로 힘차게 비상하고 있다. 이번 연주회는 산마르코대성당의 세계무대에서 오롯한 한국의 전통음악으로 승부를 견다. 한국 전통 민속음악을 대표하는 ‘산조’를 주제로 해금산조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지영회류 해금산조』와 『한법수류 해금산조』, 가야금의 명인 강태홍이 자신의 산조가락에 직접 춤을 엮은 『산조춤』을 선보인다. 부채산조나 불리는 산조춤은 부채를 든 고고한 모습으로 고도의 절제된 춤으로 청아하면서도 화사한 느낌

유학양행

이겨내다. 나아가다.

Since 1933 대한민국 진통소염제

안티풀라민®

안티풀라민 코인풀리스티
안티풀라민 소프트
안티풀라민 페스티

근육통 관절통 어깨통증

광고설의필 2018-1465-000502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뉴스앤조이의 기독교 정체성 의혹에 대한 논평

최근 뉴스앤조이(이하 뉴조)의 그릇된 보도행태에 대한 한국교계와 언론 및 시민단체의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어 뉴조에 대한 한국교회 지원 중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한국교회사회수호결사 대가 뉴스앤조이 사무실 앞에서 뉴조 규탄 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뉴스앤조이에 보도된 기사를 검색해보면, 도저히 기독교언론사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반기독교적이며, 디원주의적이며, 노골적 한국교회 죽이기로 일관한 기사들로 넘쳐난다.” “도대체 어떤 커넥션이 있기에, 동성애와 이슬람을 미화하며, 독재자 김정은에게 짓밟히고 있는 북한주민의 인권과 강제 납치된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유린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인가.”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도 2018년 12월 26일 프레스센터에서 동성애를 적극 응원하는 뉴조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고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한국교회를 향하여 작은 버리에도 혹독한 비판을 서슴지 않는 뉴스앤조이는 자신의 비리에 대하여는 소금도 부끄러워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남을 향해 들고 있는 언론의 죽장을 내려놓고 자신의 비리에 대하여 투명하게 밝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뉴조는 스스로 한국교회를 깨우는 독립언론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기독교의 교리를 정면 도전하고 있다.” 뉴조는 “교회를 해체시키려는 포스트모더니즘에 기반한 젠더 이데올로기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활동을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뉴조는 스스로 복음주의 언론이라 주장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동성애대책위원회도 2018년 12월 28일 C채널 “뉴스앤조이 후원을 중단하십시오” 코너에서 “뉴



기독교학술원
샬롬나비 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스엔조이는 퀴어신학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사상인 해방신학 다원주의 그리고 주체사상을 기독교에 접목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뉴스앤조이는 그동안 한국교회의 과수꾼 역할을 하는 기독교 언론을 차지하며 기존교회에 대한 날선 비판과 인권문제에 대한 문제제기 등을 해 왔는데, 과연 뉴조가 이러한 보도내용을 선별하는 기준이 ‘기독교적인’라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즉 뉴조가 보도하는 사실의 배경이 되는 진실이 교회의 성숙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주구인자 많은 교회들과 독자들은 의구심을 갖게 되면서 이러한 비판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에 샬롬나비는 뉴조가 그 존립목적 및 양식의 모호함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며 뉴조 후원교회들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한다. 또한 뉴조의 여러 의혹을 계기로 한국의 기독교 언론들이 기독교 언론으로서의 정체성과 각 언론기관의 사명의식을 새롭게 하여 오히려 한국교회언론의 혁신과 교회 성숙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1. 한국교회에 대한 위해(危害)적인 보도를 멈추고 기독교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치관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뉴스앤조이가 기독교언론으로서 차지하지만 그동안 뉴조의 보도의 경향과 취재기자들 및 간부들의 이력이 뉴조가 보도하는 사실들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존립목적인 한국교회의 건강한 성숙인지 의구심이 듦다. 뉴조 취재기자들이 거쳐 왔던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공동체는 주체사상을 고양시키는 곳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뉴조로 이동하는 것을 ‘파견’이라고 묘사한다니 이는 선교활동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가치를 전파하려는 것인가? 주체사상은 기독교와 양립할 수 없는 가치관이다. 이들이 교회를 가혹하게 비판하며 사실보다 인신공격에 가까운 보도를 행하는 배경에는 주체사상을 통해 한국사회와 문제 많은 한국교회를 구원하겠다는 다른 존립목적이다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뉴조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 주체사상을 구원의 근거로 전제한다는 점에서 신천지 등과 같은 이단이다. 또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정체를 위장하고 한국교계

에 기생하면서 재정적 이익을 취하는 점에서 황색언론이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린다는 점에서 사이비 언론이라 할 수 있다. 즉,

‘뉴조의 언론활동은 ‘기독교’와도 상관이 없으며 ‘언론’으로서도 한국사회에서 그 존재가치가 적다 하겠다. 따라서 뉴조는 자신들이 천명한 ‘기독교 언론’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과 주체사상과의 무관성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여 의혹을 해소하고 교회 및 다른 기독교 언론들과 하나의 공동체로서 한국사회와 교회의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만약 뉴조가 주체사상이 기독교보다 우위에 있는 가치라고 본다면 교회들을 상대로 모금 활동을 벌여 힘써야 할 것이다. 만약 뉴조가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언론이라면 기독교를 과파하려는 언론이므로 한국교회는 이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2. 후원하는 교회들은 뉴스앤조이의 공식적인 주체사상 부인이나 나올 때까지 후원을 보류해야 한다.

기독교언론은 교회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며 함께 발전해간다. 뉴스앤조이가 자리잡을 수 있었던 큰 이유는 한국교회가 급성장하면서 쌓인 여러 문제들에 대한 자정 능력이 부족할 때 뉴조가 교회개혁을 표방하면서 독자들에게 호소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많은 교회들이 부정적 언론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는 이해한다고 해도 이미 그 실체가 의심되는 뉴조의 분명한 해명과 약속(주체사상과의 관련성, 보도개선)을 작성할 때까지 후원을 보류하고 스스로 문제점을 회개,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에 주력해야 한다. 보도 개선에 대한 약속을 받아야 한다. 후원이라는 명목의 재정적 결탁으로서 개교회 목회자의 성문제, 불분명한 재정, 세습 등의 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면 뉴조 같은 언론은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것이며 국민의 질타와 성도들의 교회에 대한 우려와 외면은 계속될 것이다. 뉴조의 불분명한 기독교 언론의 정체성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함께 망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므로, 후원교회들은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여 후원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3.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지적하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 정체성이 깊은 의혹을 갖게 한다. 동반연이 밝히는 것처럼 뉴스앤조이는 “2018년 1년 동안 340여개의 기사를 작성했는데, 그중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 반대 활동을 비난하는 기사를 무려 87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뉴조는 ‘동성애가 무서운 교단들’, ‘보수 개신교회는 왜 동성애 혐오 최전선에 섰나’, ‘예장통합에 몰아치는 반동성애 광풍’ 등의 기사를 작성했다. ‘기독교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임보리 목사’를 옹호하는 기사를 7개나 작성했다. 뉴조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전문가, 학자, 약사, 의사들을 협오와 차별로 낙인찍고, 이를의 의견 자체를 가짜뉴스라 매도해 공론장에 논의되는 걸 막고 있다. 우리나라에 10~20대 청소년들이 점점 동성애에 물들고 이를 가운데 이에 이즈음 감염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사회적 성문제의 상황을 기독교 언론들이 더 열심히 알아야 하는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윤리도덕을 과파하는 건 있을 수 없다. 뉴조는 동성애 운동을 막기는커녕 소수자 인권이란 명목으로 조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뉴조의 기독교 정체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4. 자기와 다른 견해를 무조건 가짜 뉴스로 낙인찍고 비난하는 것은 공론성 차단하는 독선적인 보도 태도다.

가짜뉴스는 허위 사실을 전달해 수용자가 현실을 오인하도록 유도하고, 정치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기만적 전략이다. 뉴스앤조이는 2018년 9월 10일 가짜 뉴스라고 덧붙이며 반동성애 운동 활동가들을 지목한 기사를 냈을 때, 출처를 법원 판결이 아닌 뉴조 자체 판명으로 하였다. 특히 자신들이 가짜라고 자체 판명한 뉴스를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건 잘못된 보도행태이다. 한겨레가 가짜뉴스 프레임을 터뜨렸을 때 출처를 뉴조 및 출처 불명의 기독교 단체로 하고, 뉴조는 한겨레를 출처로 해 돌려막기식 보도를 했다. 반동성애 활동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을 동성애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운동이 과연 국민들을 기만하려는 전략인가? 민주주의 사회가 언론 문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국민들은 어느 견해가

부르게 먹고 있을 때에 은밀히 갑작스레 난처한 상황이 닥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까지 초대된 잔치자리에,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도 오신 그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동네 전체가 벌이는 잔치인데 큰일 났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때 나타난 표징으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성서에서 우리는 수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기적도 무로 부터 나왔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새 하늘과 새 땅도 역시 기적입니다.

5. 뉴스앤조이는 언론기관으로서의 존재양식의 모호함을 해명해야 한다. 뉴스앤조이는 회사의 존재양식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뉴조는 홈페이지에서는 자신들을 ‘회사’라고, 강도현 씨를 ‘대표’(또는 오너)라고 소개함으로써, 뉴조가 개인사업자 소유임을 명시한다. 반면 뉴조가 수의사업을 위해 운영하는 조이스토어에서는 뉴조가 ‘법인’이라고 소개돼 있다. 미이 2008년에도 주식회사 해산 후 불분명한 법적 실체로서 후원금 모금 활동을 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사과한 바 있다.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역시 회사의 존재양식에 대한 자기인식이 모호하고 부족한 것은 언론기관의 법적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언론기관으로서의 자질미 달이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 절차에 의거한 언론기관 운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뉴조는 왜 회사의 존재양식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현재 시점에서 홈페이지에서 조차 일관성을 갖고 명시되지 못하는지 스스로 나설 수 없다. 외부인들에게 자신의 목적을 확실하게 알려야 할 것이다.

6. 뉴스앤조이는 후원금 모금 및 탈세 등 재정적 의혹을 해명하고 의혹에 대한 대응방식에서 변화해야 한다. 뉴스앤조이는 광고를 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은 회원에 의한 후원을 주로 받기 때문에 뉴조가 비영리법인으로서 불특정 다수에게 후원금을 받는 것은 ‘기부금품’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뉴조가 지원을 받

는 공인법인 ‘한빛누리’ 역시 증여세 미납으로 인한 탈세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 언론기관은 권력기관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자신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을 때 다른 기관이나 인물들을 비판하던 기준으로 혹독하게 자신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변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여러 가지 의혹과 비판이 제기될 때 절대 들판하는 자세를 촉구한다. 근거가 없는 의혹은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며 의혹의 여지가 있는 사항은 시정하도록 해야한다. 의혹이나 비판에 대한 관심을 특정 인물의 비판이나 다른 이슈를 통해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한국사회의 발전과 교회의 성숙에 역행하는 자세이다. 이는 총불민심에서 그토록 청산하기를 열망했던 적폐의 행태이다. 사안의 내용과 해결에 집중하지 않고서는 정치적 이해당락에 빠진 적폐세력들과 같은 대응으로는 급격히 변화하는 한국사회와 여러 과제를 안고서 새로운 단계로 도약해야 하는 한국교회에서 기독교 언론으로서 존재 의의를 나타낼 수 없다. 외부인들에게는 엄격하고 자신들에게 관대한 자세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존재 기반 자체를 허무는 행위이다.

7. 뉴스앤조이의 그릇된 보도행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기독교 언론들은 기독교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한국사회는 총불민심의 지지를 얻고 탄생한 정부의 국정능력에 대한 기대와 실망감, 불행으로 대변되는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위기감, 통일에 대한 열망과 과정에 대한 우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사회의 변화 등 대처해야 할 많은 이슈들이 있다.

한국 기독교들은 이번 뉴조의 그릇된 보도 행태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항간에서 비판받는 여러 교회 문제들을 스스로 점검하고 쇄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체를 마련하여 스스로 거룩과 성숙을 도모하며 더 나아가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변화된 사회 안에서 사회 구성원 및 성도들의 영적 안녕을 위한 연구와 통일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과 준비 등 산적한 과제들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기독교 언론들은 그 정체성 확인, 사명과 역할, 교회와의 공존 방식 등에 대한 점검과 문제의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은 갯세마네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쓴 잔도 받아들이셨습니다. 기적, 꿈, 비전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이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포도주로 놀랍게”

연요한 목사의 ‘아침을 여는 기도’

사랑의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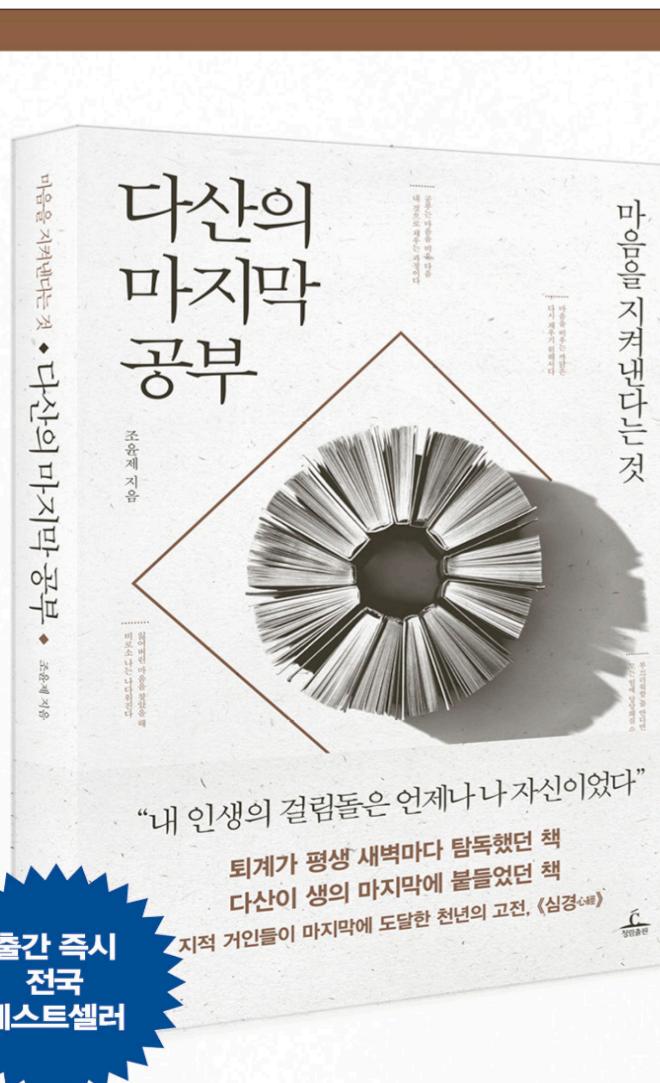
맑은 눈물을 번져나가 영원한 낙원이 되기 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으신 주님께서 저의 지난날을 용서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 주시며 우리 미래를 손에 쥐고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저의 영혼은 영적인 일에 너무도 무지합니다. 바짝 말라 텅 비어있

는 저의 마음은 고통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제 앞에 기적을 주옵소서. 기자기지 그릇된 것들로 아픔을 대체하려 이를 썼지만 지난날은 후회로 수복이 쌓여있고 온갖 산만한 일들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머리는 미래의 염려로 가득하여 어지럽습니다. “가나의 혼인집에 주님이 계시어 기적으로 복을 주신 주 은혜 힘입어” 새 포도주로 놀라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의 삶이 풍부해져서 함께 즐기고 배

부르게 먹고 있을 때에 은밀히 갑작스레 난처한 상황이 닥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까지 초대된 잔치자리에,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도 오신 그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동네 전체가 벌이는 잔치인데 큰일 났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때 나타난 표징으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성서에서 우리는 수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기적도 무로 부터 나왔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새 하늘과 새 땅도 역시 기적입니다.

6. 뉴스앤조이는 후원금 모금 및 탈세 등 재정적 의혹을 해명하고 의혹에 대한 대응방식에서 변화해야 한다. 뉴스앤조이는 광고를 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은 회원에 의한 후원을 주로 받기 때문에 뉴조가 비영리법인으로서 불특정 다수에게 후원금을 받는 것은 ‘기부금품’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뉴조가 지원을 받



“인간의 마음은 늘 휘청거리니 그 중심을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 —《심경》 첫 구절 중에서

다산 정약용, 퇴계 이황, 정조 이산... 그들은 왜 마지막까지 《심경》을 읽었을까?

“지금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다스리는 데 온 힘을 다함으로써 그간의 공부를 《심경》으로 매듭짓고자 한다. 아, 능히 실천할 수 있을까!” — 다산 정약용

“나는 《심경》을 얻은 뒤에 비로소 마음을 공부하는 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 공부에 뜻을 두고 일어서 평생 분발할 수 있는 힘은 이 책에서 나왔다.” — 퇴계 이황

공부의 마지막에서 도달한 깊은 경지, 마음 마음공부의 ‘끌판왕’이자 지금은 잊힌 조선 최고의 베스트셀러, 《심경》이 이야기해주는 마음을 지킨다는 것.

다산의 마지막 공부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
조용제 지음 | 값 15,000원



내가 단단해지는 새벽공부
천년의 내공
조용제 지음 | 값 15,800원

정림출판

TEL 02-546-4341 FAX 02-546-8053 www.chungrim.com